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지구 내 스타트업 활성화 단지 들어선다

오룡동 일원 개발 계획 변경...복합용지 추가·도로 신설 등 연말까지 문화재조사·토지보상 마무리...내년 용지 분양 예정

광주시가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북구 오룡동 일원에 조성하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변경안 주요 내용은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110만6000㎡→111만1000㎡) ▲보상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변경 ▲스타트업 시설 가능한 복합용지 추가 ▲공원·녹지 분산 배치 ▲학교용지 변경 ▲보행자도로 및 단절된 도로 신설 등이다.

AI융복합지구는 부지면적 111만㎡에 산업용지 24만㎡와 주거용지 28만㎡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올해 문화재 조사와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AI융복합지구 내에는 데이터센터, 실증·창업시설 등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기반시설 조성, 핵심인력 양성,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AI융복합지구 용지 분양은 내년 상반기 예정돼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도시공사에 문의(062-600-6661-4)하면 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부터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 집적단지 1단계(2020-2024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AI 혁신거점 고도화 사업인 2단계(2025-2029년)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단계 실행전략은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성장 환경 조성, 최고 인력과 기술이 집적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자자본 집적화 및 협업 생태계 환경 조성 등으로 압축된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 종료 이후 2025년부터 2단계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50여일 앞두고 19일 오후 광주 신세계백화점 컬처스퀘어에서 팝업 전시물 작품 'Meet & Eat'의 홍보행사가 열리고 있다. 육상의 강다슬, 양공의 기보배, 근대 5종의 전운태 등 광주 스포츠 영웅과 나진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참여작가인 마르코 브르노로부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 섬 어르신 '빅데이터' 활용 돌봄사업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시스템 구축 긴급방문 등 통합관리

전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제안 우수아이디어 시범사업인 '도전.한국' 공모에 '독거노인 통합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선정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섬 지역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한전MCS와 함께 전기사용량 자료에 기반한 도서 지역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시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도서 지역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사용량 이상 현상 탐지 및 실시간 감시 ▲전기 검침원 현장 방문 시 생활안전 및 안부 확인 ▲고 위험군 건강관리 및 긴급방문 서비스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25.5%)과 섬이 가장 많은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현장 맞춤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인 독거노인 보호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은 전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만수위' 동복댐 주변 안전조치 강화

강기정 광주시장 현장 점검...화순군과 홍수 정보 실시간 공유

광주시에 고갈 위기에 벗어날까 최근 집중호우로 만수위를 넘어선 동복댐(광주일보 7월 19일자 1면)과 관련해 주변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화순 동복댐을 찾아 방류 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관리 주체인 광주시와 주민 안전 관리를 맡은 화순군 간 댐 방류와 홍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주문했다.

광주시는 댐 월류나 방류 전 영산강 홍수통제소, 전남도·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남 하천관리청 등에 실시간 정보를 보내고 피해 우려가 인근 350가구에 안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하류 지대 마을인 연월교, 동복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황을 살펴보고 전남 범람 위기에 애태운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주민은 "폭우가 내리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며 "광주시와 화순군이 주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댐이 넘쳐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했는데 직접 댐과 마을을 둘러보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동복댐 덕분에 광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큰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군공항 시행령 추가 의견 제출

재입법예고안, 주민 보상 규정 안 담겨...국방부와 협력키로

전남도는 재입법예고된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9일 "최초 입법예고된 국방부 안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따라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건의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지역민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재입법예고안의 경우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 규정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특히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전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

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전남도는 또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가 최초 입법예고안에 반영을 요청했던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법리 검토를 거쳐 세부 규정을 다듬은 뒤 국방부에 공식 제출하는 한편,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건의 사항에 대한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월 10만원 '전남학생교육수당' 이행해야"

박형대 도의원 "학생 유출 방지"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 의원은 19일 열린 제 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 도내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교육수당에 소요될 비용은 올해 220억 원, 내년 6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라며 "조례안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